

## 에이즈 감염자 2천명 돌파

'20세기의 흑사병' 이라고 불리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계속 증가해 보건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년간 국내에서 400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 전체 감염자수가 2,00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까지 감염자수 1,613명에 비해 24.5%가 증가한 것으로 하루 한명 이상의 감염자수가 발견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감염자가 이같은 공식 통계의 5~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감염자 가운데 지난해 환자로 전환된 경우는 89명이었고 지금까지 총 421명의 감염자가 사망해 현재 감염자중 생존자는 1,587명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에이즈 감염자는 지난 1985년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98년까지 연간 100명 안팎에 머물렀으나 99년 이후 200명 가량으로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한해동안 400명이 발견됐다고 하니 확산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분의 2가 이성간 성 접촉으로 감염

감염경로가 확인된 1,608명의 감염요인을 보면 국내 이성간 성 접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동성간 성 접촉 29.8%, 국외 이성간 성 접촉 23%의 순으로 국내 이성간 성 접촉과 동성간 성 접촉에 의한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건원은 설명했다.

전체 감염자 중에서 남자는 1,776명(88.4%), 여자

는 232명(11.6%)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5.2%, 20대가 27.1% 등으로 많았으나 10대가 31명, 9살 이하도 11명이나 있었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수는 외국에 비해 아직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내 이성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비율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성 개방 풍토에서 에이즈가 동성연애자 그룹에서 일반인 그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콘돔 자판기를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등에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전화 등을 통해 에이즈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 세계 에이즈 환자 4,200만명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에이즈 퇴치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난해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310만명에 달했으며 50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새로 감염됨으로써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4천2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획기적인 예방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126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4천500만 명이 추가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에이즈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지역이 2,9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남부·동남아시아가 600만명, 중남미가 150만명, 북미가 98만명, 서유럽이 57만명 등이다. 지금까지 에이즈 사망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역시 사하라 사막 남부지

역이 240만 명으로 제일 많고 남부. 동남아시아가 44만명, 중남미 6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 중국도 에이즈 환자 100만 명선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지난해 에이즈 환자수가 전년도의 60만 명보다 40만 명 가량 늘어난 100만 명선에 이르렀다고 시인했으나 유엔은 실제 환자수가 1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국가라고 북한의 의학 관계자가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지난 98년 이후 유엔에이즈계획과의 협력아래 에이즈에 대한 예방 캠페인은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크게 확산되자 세계에이즈의 날인 구랍 12월 1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치명적인 에이즈의 확산 방지를 촉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로마, 파리 등에서는 에이즈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가두 행진이 벌어졌고 하노이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차별중단을 촉구했다. 인도에서는 에이즈 퇴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고 중국에서도 수천명이 모여 관련 행사를 가졌으며 에이즈가 국가위기로 등장한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의 확산 방지책을 촉구하는 지도자들의 연설 등이 잇따랐다.

중국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에이즈 대책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대로 가면 오는 2010년까지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가 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에이즈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에이즈 확산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공한다. 에이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고를 받았다.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도 에이즈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는 형편이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이즈는 방심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에이즈 감염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이즈는 지난 20여 년 동안 2천200여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서운 병으로 아직은 예방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공포의 질병이다. 그러나 무조건 겁내고 무서워할 병은 아니다.

##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 편견 없애야

전문가들은 에이즈 감염경로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성관계와 수혈 등 혈액 감염, 그리고 모자감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에이즈 환자의 타액에 접촉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에이즈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에이즈 확산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공한다. 에이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광호 · KBS 해설위원